

대학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 진로체험학점제

- 학생들은 주로 3학년 이후에,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로체험학점제에 참여했으며, 참여 과정 전반에 대해 보통(3.67점/5점 만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성과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4.18점/5점 만점).
- 실제로 진로체험학점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0.258점(5점 만점), 진로준비행동을 0.216점(5점 만점), 진로 결정수준을 0.409점(4점 만점), 학교생활만족도를 0.211점(5점 만점)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냄.
- 전체 학기 중 희망하는 학기마다 정규교과와 병행하며 진로체험학점제를 이수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으며 (31.2%), 지도교수는 주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45.2%)하는 것을 선호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주 |

이 글은 2019년 수행 중인 이민욱 외(2019) '대학 진로체험학점제 효과분석과 발전방안'과 이민욱 외(2018) '대학의 진로체험학기제 운영 사례 및 정책화 방안 연구'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임.

| 각주 |

1) 2020년부터 중등 단계 진로 체험과의 융어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생의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설계역량 강화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진로 탐색학점제'로 명칭으로 변경 될 예정이다.

대학 진로체험학점제는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을 개선하는 새로운 제도로써 이를 도입 · 확산 · 발전시키기 앞서 대학 진로체험학점제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많은 대학에서 진로와 관련된 정규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담당 전문 인력 확보의 한계, 취업 중심의 진로지원, 천편일률적인 교과 과정 및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은 미흡한 실정임.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생애전환기를 맞은 성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진로를 위해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진로체험학점제' 운영을 확산하고, 진로상담, 취업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이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학 진로체험학점제¹⁾ 정의: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해 프로젝트 학습, 인턴, 창업 등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교과목을 스스로 설계하고 체험함과 동시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현재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진로체험학점제를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와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며, 제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분석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8년 대학 진로체험학기제 설문조사」 및 「2019년 대학 진로체험학점제 설문조사」

- 분석 대상: ①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의 진로체험학점제 참여 학생 301명 ② 2019년 1학기 진로 체험학점제 참여학생 155명, 미참여 학생 577명



각주

- 2)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즉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 해결)를 의미함.
- 3) 본인에게 맞는 진로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과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함.
- 4)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를 의미함.
- 5) 설명변수-진로체험학점제 참여여부, 통제변수-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생 개인 및 학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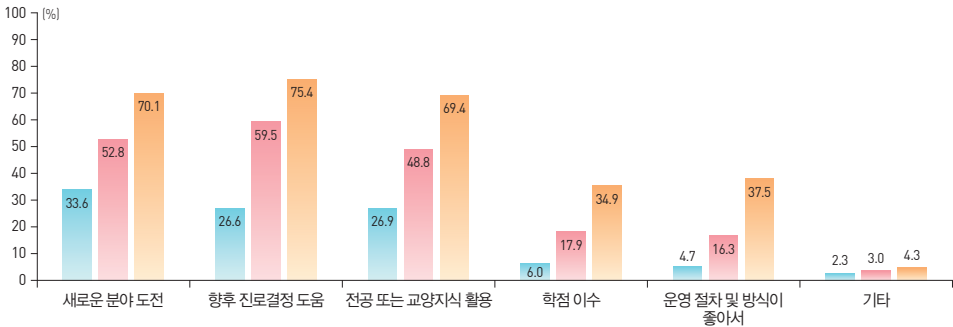


- 분석 내용: ① 현황 및 요구분석: 참여동기, 참여학기, 참여과정 만족도, 이수형태, 지도교수 선정범위, 학교 차원의 지원, ② 효과분석: 진로결정자기효능감²⁾, 진로준비행동³⁾, 진로결정수준⁴⁾, 전공 및 학교생활 만족도
- 분석 방법: ① 현황 및 요구분석: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② 효과분석: 참여 및 미참여 학생 비교를 위한 경향점수매칭기법(PSM)을 사용함⁵⁾.

02 대학 진로체험학점제 현황 및 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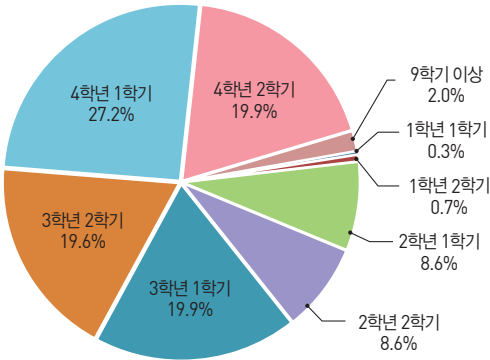
진로체험학점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로 4학년 1학기에,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로체험학점제 참여했으며, 참여 과정 전반에 보통(3.67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4.18점).

- 참여 동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향후 진로결정에 대한 도움, 진로 및 적성 탐색
 - 참여 동기에 대해 1순위로 가장 높은 것은 '새로운 분야 도전'으로, 101명(33.6%)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공 또는 교양지식 활용'과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순으로 나타남.
 - 2순위까지 확대한 결과에서는 '향후 진로결정 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179명, 59.5%), '새로운 분야 도전'과 '전공 또는 교양지식 활용'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진로체험학점제 참여 주요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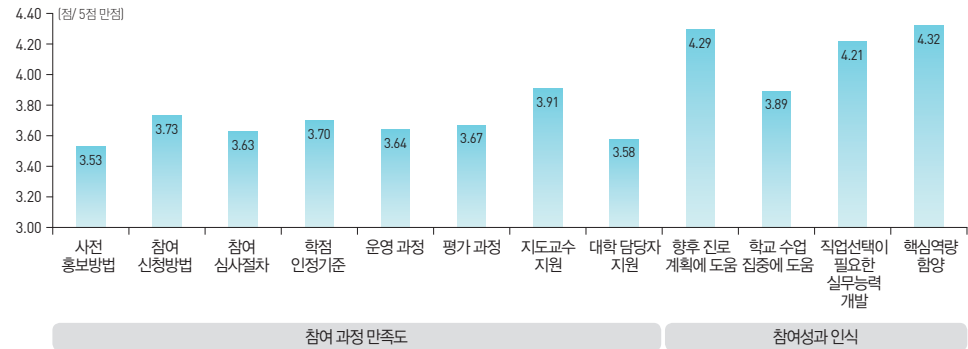
- 참여 학기
 - 4학년 1학기에 참여한 학생이 82명(27.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4학년 2학기 및 3학년 1학기가 60명(19.9%), 3학년 2학기가 59명(19.6%)으로 나타나 진로체험학기제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3학년 이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진로체험학점제에 참여한 학기

- 참여과정 만족 및 성과 인식수준
 - 지도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3.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 신청 방법이 3.73점, 학점 인정 기준이 3.70점, 평가 과정이 3.67점, 운영과정이 3.64점, 참여 심사 절차가 3.63점, 대학 담당자 지원이 3.58점, 사전 홍보 방법이 3.53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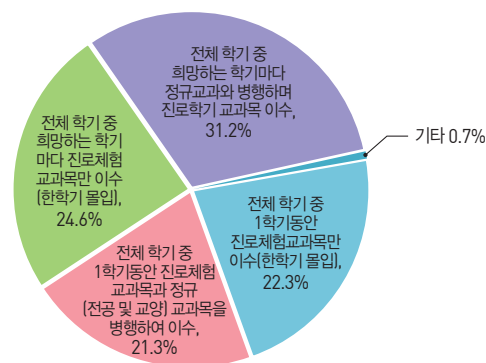
- ‘문제해결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협동능력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4.29점, ‘직업선택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4.21점으로 나타남. ‘참여 경험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3.89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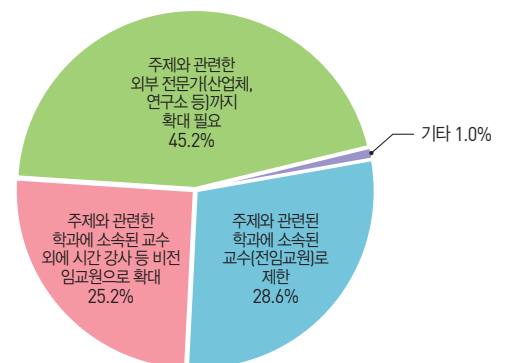
[그림 3] 진로체험학점제 참여과정 만족도 및 참여성과 인식

진로체험학점제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학기 중 희망하는 학기마다 정규교과와 병행하며 진로체험학점제를 이수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으며(31.2%), 지도교수는 주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45.2%)하는 것을 선호함.

- 가장 적절한 이수 형태: 전체 학기 중 희망하는 학기마다 정규교과와 병행하며 진로체험학점제를 이수하기를 희망(31.2%)
 - ‘전체 학기 중 희망하는 학기마다 정규교과와 병행하여 진로체험학기 교과목 이수’로 학생들의 31.2%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학기 중 1학기 동안 진로체험교과목만 이수(한 학기 몰입)’가 74명이 응답하여 24.6%를 차지함.
- 지도 교수의 선정 범위: 주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45.2%)
 - ‘주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산업체, 연구소 등)까지 확대 필요’(136명, 45.2%)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제와 관련한 학과의 소속된 교수(전임교원)로 제한’(86명, 28.6%)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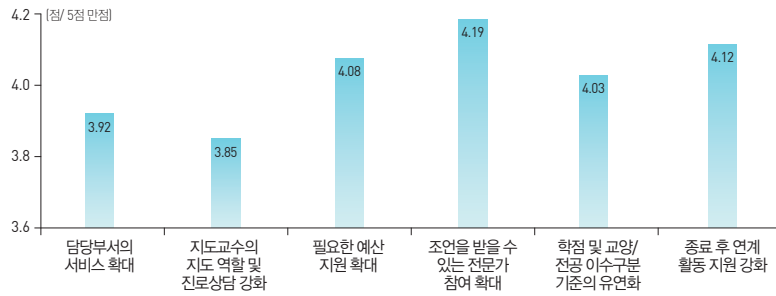


[그림 4] 진로체험학점제의 가장 적절한 이수 형태



[그림 5] 선호하는 진로체험학점제의 지도교수 선정 범위

- 학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산업계 및 학계)의 참여 확대(4.19점)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산업계 및 학계)의 참여 확대’에 대한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4.19점). 다음으로 ‘진로체험학기제 종료 후 연계할 수 있는 활동 지원 강화’(4.12점), ‘진로체험학기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확대’(4.08점), ‘해당 교과목 학점 및 교양/전공 이수 구분 기준의 유연화’(4.03점), ‘담당 부서의 서비스 확대’(3.92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학교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

03 효과분석: 진로역량 및 만족도 변화

진로체험학점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보임

- 진로체험학점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0.258점(5점 만점), 진로준비행동을 0.216점(5점 만점), 진로결정수준을 0.409점(4점 만점), 학교생활만족도를 0.211점(5점 만점) 높이는 효과를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진로체험학점제의 참여경험이 학생 본인의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이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수준을 높이며, 더 나아가 본인의 진로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이어지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전공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로체험학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 진로체험학점제 효과 분석 결과

구분	진로체험학점제 참여여부	constant	R ²
[효과분석1]진로결정자기효능감	0.258*** [0.078]	3.155** [1.297]	0.278
[효과분석2]진로준비행동	0.216** [0.096]	0.526 [1.761]	0.288
[효과분석3]진로결정수준	0.409*** [0.103]	4.093** [1.605]	0.196
[효과분석4]전공만족도	0.076 [0.083]	3.830*** [1.398]	0.291
[효과분석5]학교생활만족도	0.211*** [0.077]	5.665*** [1.169]	0.407

[주]
1) * p<.1; ** p<.05; *** p<.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04 시사점

- 대학 진로교육에 있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체험학점제는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진로체험학점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기에 정규교과와 병행하며 이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주제와 관련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지도교수를 외부전문가까지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성공적인 진로체험학점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유연한 학사제도 개편과 운영이 필요함.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진로체험학점제는 체험학습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중심 프로그램이 진로 관련 역량 강화에 효과적임을 재확인하였음.
- 진로체험학점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전달자에서 더 나아가 지식을 구성하고 경험을 촉진하는 안내자, 촉진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민 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 정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조원)